
제36차 FAO총회 참석 결과 보고

2009. 12.

통 계 청 

I 회의개요

□ FAO 총회

- 매 2년 회원들이 참석하여 세계 식량문제, 빈곤기아 등 식량·농업문제 전반을 논의하는 FAO 최고 의결기구로 농식품부에서 계속 참가해 왔음
- 최근 농업·농촌 통계가 국제적 주목을 받으며 농업·농촌통계와 관련된 국제전략이 36차 총회의 안건으로 채택됨에 따라, 우리청도 농식품부와 함께 참석

□ 회의 기간 및 장소

- 기간: 2009. 11. 18(수)~23(월)
- 장소: 이탈리아 로마, FAO 본부
- ※ FAO 세계 식량안보 정상회의(11. 16~18, 농식품부장관 참석)에 이어 FAO 총회 개최

□ 주요 의제

- 농업·농촌통계 국제 전략
- 세계 식량 및 농업 실태 보고
- UN/FAO 세계 식량 프로그램
- ※ 농식품부는 2010~2011 사업계획 및 예산, 이사국 선출 등의 FAO 운영관련 의제 및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협정, 세계식량안보위원회 개혁에 관한 보고서 채택 등 현안 의제에 참석

□ 대표단 구성

○ 통계청

구 분	소속 및 직위	성 명
대표	농어촌통계과 사무관	박진우
”	농어촌통계과 주무관	최통진

○ 농식품부

구 분	소속 및 직위	성 명
수석대표	통상정책관	유병린
대 표	국제협력총괄과장	홍성재
”	국제협력총괄과 주무관	전지수
”	국제협력총괄과 주무관	홍진희
”	주이탈리아 농무관	박수진
자 문	FAO 한국협회 대리	윤지완

II 회의내용

1. 농업·농촌통계 국제전략 회의

□ 개요 및 배경

- 농업·농촌 통계관련 국제전략의 필요성은 2008년 39차 유엔통계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제기되어 실무그룹 구성
 - 실무그룹(working group)은 Eurostat, World Bank, FAO, 미국 농무성 및 ISI 등이 참여하고 있음
- 2008년 10월 유엔통계위원회 전문가 회의(워싱턴 DC)에 보고서 초안 제출
- 2009년 2월 40차 유엔통계위원회에서 정식의제 채택
- 이후 세계통계대회(ISI), FAO 아·태지역 전문가 회의 등 국제회의의 주요안건으로 채택되어 논의되었으며
- 이번 FAO 총회에서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2010년 41차 유엔통계위원회에서 국제전략 최종안 채택예정

□ 국제전략의 주요 내용

- 농업·농촌 통계 수요 및 새로운 개념 틀 정의
- 최소한의 핵심 데이터 세트의 정의
- 국가통계시스템으로 농업통계를 통합
- 원격탐사 등과 같은 새로운 방법론의 채택
- 통계능력배양을 위한 글로벌 프로그램의 개발 등

□ 의장단 주요 발언 내용

○ 의장(Mr. Hafez Ghanem, Assistant Director General)

- 관심 갖고 참석해 주신 각국의 대표단에게 감사드립니다
- 농업/농촌 통계의 중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으며, 현재의 변화된 상황에 맞도록 재검토해야할 때임

○ FAO 통계국장(Mr. Pietro Gennari)

- 통계와 관련된 FAO의 역할과 과업에 관한 독립평가(Independent Evaluation of FAO's Role and Work in Statistics)를 통해 국가차원에서의 농업통계 생산능력을 신속히 개선해야함
- 특히나 아프리카, 아시아, 남미 등의 가난한 국가들의 식량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신속히 해결해야할 문제
- FAO가 제시하는 Global Strategy의 주요내용은 새로운 개념틀 형성, 핵심 데이터 세트의 정의 및 농업통계를 국가통계시스템으로 통합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
- 오늘 회의에서 논의되는 사항들은 통합 정리되어 2010년 2월에 있을 UNSC 41차 Session에 제출될 것임

□ 각국대표의 발언 요약

○ 레바논

- 기본적으로 Global Strategy가 필요하다고 보며 전적으로 동의함

- 그러나 농업통계 이외에 농촌통계(Rural Statistics)를 포함시킨 것에는 동의하지 않음
- 또한 모든 국가가 동일한 체제로 간다면 (레바논의 경우) 현재 10년 마다 하고 있는 농업센서스를 5년마다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함

○ 캄보디아

- UNSC 및 FAO에서 추진하고 있는 Global Strategy와 관련하여 전적으로 동의함
- 또한 농업통계와 관련한 여러 문제에 대한 세계각국의 관심을 기다리고 있음

○ 탄자니아

- Global Strategy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모든 지원을 다하겠음

○ 말리

- Global Strategy는 좋은 아이디어이며 빠른 시일내에 가시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
- 특히 가축(livestock) 통계와 관련해서는 통계 선진국의 가축통계 기법을 전수받기를 희망함

○ 아프가니스탄

- 경제 분야의 다른 부분에 비해 농업·농촌통계는 주목 받지 못했음
- 투자에 있어서도 농업·농촌통계는 다양한 자료가 요구되는 부문임에도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

- 이번기회에 Global Strategy가 수립된다면, 필요에 의한 수립과 새로운 방법론의 채택이라는 점에서 고무적일 것으로 생각하며 기대가 큼

○ 캐나다

- Global Strategy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며 동의함
- 그러나 캐나다의 경우 데이터의 수집(data collecting)과 관련된 여러 법규사이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으며, 다른 국가(특히 연방형태의 국가)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
- 또한, 농업통계에 어업과 삼림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상당히 부담되는 문제임
- 마지막으로 응답부담에 대한 문제도 풀어야할 문제임

2. 기타 회의

□ 한국은 수석대표(유병린 통상정책관)의 기조연설

- 식량안보관련 G8회의 결과지지 의사 표명, 지속가능한 농업 및 산림자원 관리와 관련된 우리의 경험 등 소개

□ 각국의 대표단은 자국의 식량 및 농업실태에 대하여 보고

- 특히, 아프리카 및 일부 아시아 국가 등 개발도상국 이하 수준의 국가에서는 자국의 고질적 식량부족과 환경파괴 등으로 인한 가뭄, 홍수 등의 문제 소개

Ⅲ 회의결과

□ 총평

○ FAO 총회 참석으로 국제협력 역량 강화

- 그동안은 FAO 아·태지역 전문가 회의에만 참석하여, 총회에서 다루지는 의제에는 간접적인 입장표명만 가능
- 이번 참석으로 각국 농업통계 전문가들과의 의견교환을 통한 국제협력 역량강화 기대

○ 관련기관(농식품부, 농진청 등)과의 업무협조 강화

- 농식품부는 “농업·농촌통계 국제전략”과 관련하여 큰 관심은 없으며, 관련업무는 국제협력국이 담당
- 이번 참가를 통해 자료공유 등 업무협조 강화

□ 농업·농촌통계 국제전략 관련

○ 통계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국가들은(레바논, 캄보디아 등) 국제전략의 수립에 적극 찬성하며 선진국의 도움을 기대하였으나

○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들은 국제전략이 필요하다는 큰 틀에서는 찬성하지만 법령개정, 응답부담 등 현실적인 문제를 이유로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음

○ 농림어업통계를 국가통계시스템에 포함시키는 문제

- 각국의 입장이 다르며 어느 부처(통계청 또는 농림부)가 사업을 주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음

- 따라서 본 의제와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, 우리에게 유리한 쪽으로 국제전략을 이끌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국제동향을 파악할 필요 있음

□ 관련기관과의 협력

- 농어업통계분야는 업무특성상 국제회의 현장에서 관련 기관과 원활한 소통 및 협력을 위한 노력 필요
- 회의참석 후에도 결과보고 및 사후처리 등을 공유·공조할 수 있는 창구 필요